

#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통행료 인하 결의문 채택

## 포천시의회, 1km당 110원으로 남부지역보다 2배 이상

포천시의회(의장 이강림)는 12월 6일 제3차 본회의에서 오는 12월 연말에 개통예정인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일산~퇴계원' 민자사업 구간에 대한 통행료 인하에 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포천시의회는 결의문을 통해 '경기도 북부지역은 지역적 특수성으로 인해 지난 50여년간 각종 규제에 주된 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받

는 등 상대적 불이익을 받아왔으며 중요한 교통기반시설 중 하나인 고속도로 건설에 있어서도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로 모든 구간 중 가장 늦게 개통되는 불이익을 당해왔다'고 주장했다.

또한, 올해 12월말 전면개통을 앞두고 있는 일산~퇴계원구간은 정부재정이 아닌 민간자본에 의해 추진 돼 현재 알려진 고속도로 통

행요금 계획(km당 110원)은 구간요금이 같은 도로인 경기남부지역(km당 47원)보다 2배 이상 비싼 것으로 알려져 있어 범정부 차원에서 합리성에 입각한 요금개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특히, 의회는 "일산~퇴계원간 민자고속도로로 통행료를 내려 민자고속도로에서 손실분이 발

생한다면 전액 국가에서 보조하여 통행료를 한국도로공사에서 운영하는 경기남부 구간과 동일하게 책정하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포천시의원들은 "만약 이같은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16만 시민과 함께 보다 강력한 투쟁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승환 기자 forme65@paran.com

## 추천! 한미당 이야기 인생은 왜 사느냐고



이보용 본지재무위원장

“ 왜 사느냐? ”고 “ 어떻게 살아가느냐? ”고 그 물음지 마시게. 사람 사는 일에 무슨 공식이라도 있겠는가? 그냥 세상이 좋으니 순응하며 사는 것이. 보이시는가. 저기 푸른 하늘에 두둥실 떠있는 한 조각 흰구름. 그저, 바람 부는 대로 흘러가지만 그 얼마나 여유롭고 아름다운가.

진정 여유 있는 삶이란 나 가진 만큼으로 만족하고 남의 것 탐내지도 보지도 아니하고 누구하나 마음 아프게 아니하고 누구 눈에 슬픈 눈물 흐르게 하지 아니하며 오직 사랑하는 마음하나 가슴에 담고 물 흐르듯, 구름 가듯, 그냥 그렇게 살아가면 되는 것이라네.

“남들은 저러 사는데” 하고 부러워하지 마시게.

깊이 알고 보면, 그 사람은 그 사람 나름대로 삶의 고통이 있고 근심 걱정 있는 법이라네. 육에도 티가 있듯 이 세상엔 완벽이란 존재하지 않으니가.

한가지 살아가며 겪은 돈은 탐하지 마시게. 먹어서는 아니 되는 그놈의 ‘돈’ 받아 먹고 쇠고랑 차는 풀, 한 두 사람 보았는가?

빈을 때는 좋지만 알고 보니

가시 방식이요, 뜨거운 불구덩이 속이요. 그 곳을 박차고 벗어나지 못하는 선풍들. 오히려, 측은하고 가련하지 않던가. 그저, 비우고 고요히 살으시게.

감잡한 밤하늘의 별을 헤며 반딧불 빛살이 마시는 막걸리 한잔. 소쩍새 울음소리 자장가 삼아 잠이 들어도 마음 편하면 그만이지.

휘황찬란한 불 빛 아래 값비싼 술과 멋진 풍류에 취해 흥청거리며 기회만 있으면 더 가지러 눈 부릅뜨고 그렇게 야동 다용하고 살면 무일 하겠나.

가진 것 없는 사람이나 가진 것 많은 사람이나 웃 입고, 잡 사고, 깨고, 술 마시고, 하루 세 끼 먹는 것도 마찬가지고, 늙고 병들어 부랑간 갈 때, 민손 쥐고 가는 것도 똑 같지 않던가. 우리가 100년을 살겠나, 1000년을 살겠나?

한 편이라도 더 가지려, 발버둥쳐 가져 본들, 한 치라도 더 높이 오르려, 안간힘을 써서 올라 본들, 인생은 일장춘몽. 틀어 마신 술 마저도, 다 내 뱉지도 못하고 눈감고 가는 길, 마지막 입고 갈 수의에는 주머니도 없네. 그렇게... 모두 버리고 갈 수 밖에 없네.

이름은 남지 않더라도 가는 길 뒤편에서 손가락질하는 사람이나 없도록, 허망한 욕심 모두 버리고, 베풀고, 비우고, 양보하고, 덕을 쌓으며 그저, 고요하게 살다가 조용히 떠나 세나.

좋은글 중에서 (문의 011-342-5834)

# 경북대 다솜누리 봉사단 경기도지사상 수상

## 포천재활복지연구소 소속 자원봉사단체로 다양한 활동

경북대학 부설 포천재활복지연구소(소장 양경희) 소속 다솜누리봉사단이 12월6일 포천시 제8회 자원봉사 대축제에서 그동안의 봉사활동실적을 인정받아 대상인 경기도지사상을 수상했다.

포천반월아트홀 소극장에서 개최된 이날 축제에서 다솜누리봉사단 200여명은 2007년 한해동안 따뜻한 손길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다가가 다양한 사랑을 실천해 온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날 우수자원봉사 단체로 경기도지사상, 우수 자원봉사 단체상 대상으로 포천시장상, 청소년 및 대학생 부문 최우수상으로 포천시장상, 개인 부문 우수 자원봉사자 상으로 포천시장상과 포천시의회의 의장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이날 개인상을 수상한 이광욱 다솜누리봉사단장은 “작업치료라는 전공을 살릴 수 있는 분야에서 즐겁게 봉사하였으며 타대학 학생들도 자신의 전공을 접목시켜 실습한다고 생각한다면 대학생 자원봉사 활동이 더욱 활성화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다솜누리봉사단을 이끌고 있는 경북대학 작업치료과 양경희 교수는 “경북대학 이지승학장님과 전지용 부학장님들 학교를 이끌어가는 분들의 적극적인 배려가 자원봉사대상을 수상할 수 있도록 했다”

며 “앞으로도 작업치료 분야에서 봉사의 손길이 필요한 곳이면 어디든지 달려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북대학 부설 포천재활복지연구소 다솜누리 봉사단의 2007년도 주요 봉사활동 내용은 다음과 같다.

▶2007곰두리 두레마를 가을 기차여행 봉사활동 ▶2007 경기도 대학생 자원봉사 워크숍 참석 ▶제2회 장애인 한미당 큰잔치 봉사활동 ▶장애인들과 함께하는 Let's go pocheon 봉사활동(포천시, 강원도) ▶작업치료 순회교육 봉사활동(영

북인천노인대학) ▶부평복지회관 캠프 봉사활동(강화도) ▶곰두리 두레마를 summer camp 봉사활동 ▶구리 장애인 복지회관 봉사활동(강원도) ▶포천시 대학생자원봉사단 발대식 워크숍 ▶노인전문 요양원 방문 봉사활동(포천시 자혜의 집) ▶곰두리 두레마를 소풍 봉사활동(광릉수목원) ▶포천시 어린이 한마당 봉사활동(포천시종합체육관) ▶장애인어울 한마당 봉사활동(포천시종합체육관) ▶노인전문 요양원 방문 봉사활동(포천시 자혜의 집)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경북대학 부설 포천재활복지연구소 소속 다솜누리봉사단이 12월6일 포천시 제8회 자원봉사 대축제에서 그동안의 봉사활동실적을 인정받아 대상인 경기도지사상을 수상했다.

# 자체사고 예방을 위한 사례발표

## 포천경찰서, 12월 무궁화 포럼 개최



포천경찰서에서는 지난 10일 4층 강당에서 각 과장, 계(팀)장, 지구대장, 파출소장 등 필수요원을 제외한 전직원 1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자체사고 예방을 위한 12월중 무궁화포럼을 개최했다.

# 경기북부 12월의 문화인물 허목 선정

조선 중기의 위대한 학자요, 경제가이며, 동방전서체의 제1인자인 미수 허목(許穆, 1595(선조 28) ~ 1682(숙종 8)) 선생을 경기북부 12월의 문화인물로 선정되었다.

경기도 제2청에서는 63세의 노령으로 지평에 임명되어 환갑이 넘은 나이에 관계(官界)에 진출하여 정승까지 오른 대령노인(臺嶺老人) 허목 선생을 경기북부 12월의 문화인물로 선정하여 선생의 연구 지인 연천군과 함께 도와 군의 홈페이지에 주요업적 소개 및 각 시·군에 포스터를 배포하는 등 홍보에 나섰다.

미수 허목은 조선 중기의 대학자, 문신으로 사상적으로는 이항, 정구의 등의 학통을 계승하여 이익에게 전승시킴으로써 기호학과 남인의 선구자이고 남인 실학파의 토대가 되었다. 그는 당시의 사회도

순들을 극복하기 위한 새로운 정책 대안의 제시에 주력하였다.

그의 예(禮)를 준거로 한 합리론의 권위와 질서를 확립하고 일반대중들이 왕실에 대해서 유교적이 예를 보편화함으로써 상대적으로 집권층인 사대부의 권위를 높여려는 입장에 정면으로 대립하였다. 특히 일반 사대부가 기회균등을 보장하려는데 주력하였다.

당시 조선의 조정에서는 예송논쟁이 격렬하게 일어났는데 이 논쟁의 두 축이 바로 우암 송시열과 미수 허목이다. 허목과 송시열은 성리학의 이념이 현실사회에 구현되는 것이 바로 예라고 생각했으며, 이러한 관점에서 두사람이 목숨을 걸고 치열하게 전개했던 예송논쟁은 단순한 당파싸움이 아니라 국가

비상시에 자신의 학문적 이념과 원칙을 통해 국론의 통일을 실현하려는 정치적 노력이라 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허목에게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동방의 제1인자라는 독특한 그의 전서체이다. 중국 진한 이전의 문물에 대한 탐구가 문자에 적용된 경우인데 그 아름다운 글자체는 그가 직접 쓴 ‘적주동해비’로 전해지고 있으며, 이 비석을 세워 삼척의 바닷물도 물러나게 했다는 일화가 전해질 정도로 신기가 어려웠다고 전해지고 있다.

연천군 왕징면에는 허목이 살던 시골의 초가집이 실화(失火)로 인하여 태버렸으나 다시 짓지 못해 촌가에서 임시로 거주하는 사정을 알고 숙종이 하사한 은거당이 있었고, 연천군 미산면에는 숙종의 명령으로 미강사원이 세워져 허목의 학문과 사상이 널리 퍼졌으나 현재는 모두 소실되고 터만 남아있어 보는 이를 안타깝게 하고 있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 포천시 창수면 오가1리 마을회관

## 2층 건물 리모델링 공사 준공식



지난 11월에는 오가 2리 마을회관 준공식에서 마을 회관 부지 1.431㎡를 이조원(78세) 어르신이 마을에 기증하여 지역주민의 마음을 훈훈하게 하기도 했다.

포천시 창수면 오가1리 마을회관 리모델링 공사 준공식이 지난 7일 박운국 포천시장과 이병욱 포천시회 의원, 지역주민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번에 리모델링 된 마을회관은 9천여만원을 투입하여 견축면적 317㎡ 규모의 2층 건물로 지난 8월 착공하여 3개월간의 공사기간을 거쳐 완공되었다.

한편, 지난 11월에는 오가 2리 마을회관 준공식에서는 마을 회관 부지 1.431㎡를 이조원(78세) 어르신이 마을에 기증하

여 지역주민의 마음을 훈훈하게 하기도 했다.

포천시는 2004년부터 2013년까지 읍·동을 제외한 11개면에 마을기반정비, 농촌도로 정비, 문화복지시설확충, 재해방지시설 사업 등 면당 30억 총 330여억원을 투자하는 ‘농촌정주기반확충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군사시설보호법등 각종규제 등으로 낙후된 지역주민의 건전한 문화생활 욕구를 충족시키고 삶의 질 향상 및 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하승환 기자 forme65@paran.com

# 독자제보\_이진형

## 제설용 모래주머니

얼마 전 수원산길을 넘어 오다가 개인 식당 진입로에 포천시에서 제설용으로 비치한 것으로 보이는 모래주머니가 다량(100여개)으로 눈에 띄었습니다. 이상한 생각에 그 영업장으로 살짝 들어 가보니 도로주변 좌우로 길게 늘어지게 놓여 있더군요.

국도 또는 지방 도로도 아닌 사유지임에 틀림없는데 그리고 이용자가 그리 많아 보이지도

않은 곳인데 어떻게 주민의 세금으로 만들어진 제설용모래주머니가 비치될 수 있었는지 도저히 납득 가지가 않더군요! 사실 제가 사는 소음음의 경우에 보면 눈이 오면 제때 제설작업이 되지 않아 출퇴근에 어려움이 많은데, 차가 밀리는 곳 어디에도 모래주머니를 볼 수가 없었는데 말입니다.

공무원의 소행이라든 직권을 남용한 것이고 식당 개인이 그러하였다면 그 또한 책임을 면하기 어려울텐데 말입니다. 마침 지니고 있던 카메라로 현장을 찍었으니 참고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 수원산길을 넘어 오다가 개인 식당 진입로에 포천시에서 제설용으로 비치한 것으로 보이는 모래주머니.

# 독자제보\_안관용

## 2007 포천시 자원봉사 대축제

포천시자원봉사센터(소장 문은주)는 평소 나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하여 자원봉사로 수고하시는 봉사자 여러분들께 온 마음으로 감사드리며, 자원봉사자로서의 자부심과 긍지를 높이고 단체 및 개인봉사자들 간에 정보 교류의 장으로 마련하기 위하여 뜻 깊은 자리로 만들어졌다.

당일 시상식에서는 포천시민 안전봉사대 순병락남께서 행정자치부장관상 수상을 비롯하여 단체 및 개인 표창을 통하여 지난 일 년간의 노고를 치하하였으며, 봉사자들에게 주어지는 자원봉사활동 인증서 수여에서



포천시자원봉사센터장 소장 문은주

# 포천시기독교연합회 정기총회



포천시의 목회자와 장로들로 구성된 포기연 총회는 박춘식 목사(새터교회·사진)의 사회와 권혁주

2008년을 위한 포천시기독교연합회(포기연) 정기총회가 지난 12월1일 신북면 만세교에 위치한 새터교회에서 개최됐다.

포천시의 목회자와 장로들로 구성된 포기연 총회는 박춘식 목사(새터교회·사진)의 사회와 권혁주 목사(포천제일교회) 설교로 1주에 배를 드리고 2부로 회무를 진행하여 신임회장으로 새터교회 박춘식 목사를 추대했다.

박춘식 목사는 “새터교회 부임한 지 5년밖에 안되지만 저를 회장으로 추대해주신 것은 제가 온전교회 출신이란 점이 작용한 것 같다”며 “회장 재임기간중 포천시의 도덕성과 영적 성장을 위해 힘쓰겠다”고 다짐했다.

김현아 기자 hona25490@hanmail.net

# 주유중 엔지정지 불이행 ‘여전’

## 경기북부 5개 주유소 과태료 부과

위험물안전관리법에 의거 시행중인 ‘주유중 엔지정지’가 행정청의 지속적인 계도와 단속에도 불구하고, 주유소의 안내미흡과 운전자들의 인식 부족으로 여전히 지켜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제2소방재난본부(본부장 류소현)는 지난 4일부터 2차례에 걸쳐 주유중엔지정지 불이행 상태를 특별 단속한 결과, 총 5개 주유소를 적발해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관내 840개 주유소중 84개 주유소에 대해 표본단속을 실시한 이번 단속에선 5개의 주유소를 이용한 186대의 차량중 5대에 대해 주유중엔지정지를 요청하지 않고 주유하다 적발됐다. 각 소방서별 적발결

과를 보면 ▶고양시방서가 82개 주유소 중 3개 주유소 ▶일산소방서 78개 주유소중 1개 주유소 ▶포천소방서 117개 중 1개 주유소가 각각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단속 결과는 상반기 0건에 비해 대가 증가한 것으로, 지도위주에서 벗어나 비노출 증거확보 단속이 기인한 결과로 분석됐다.

한편 제2소방본부관계자는 “이번 단속을 지켜본 결과 대부분의 주유소가 ‘주유중엔지정지’ 규정을 알고 있으나 지켜지지 않는 이유는 운전자와의 갈등을 우려한 주유소 관계자의 미온적인 대처에 있다”며 무엇보다도 운전자 스스로 주유중엔지정지를 정지하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인식되는 운전문화 정착해 나가야한다”고 말했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